

#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18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 시 121:1-8 .....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 43장(새 40장) .....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 22번(새 40번) .....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자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다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는지 온전히 알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자아 사랑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사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고통과 슬픔을 보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교회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와 진리와 사랑의 기둥 위에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능력을 보여주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 마태복음 10:34-39 ..... 인도자
- 말씀증언(Sermon) ..... 이송원 목사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아의 틀이 깨집니다.

- 봉 헌(offering) ..... 350장(새 320장) .....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 인도자
- 찬 송(Hymn) ..... 511장(새 314장) .....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 이송원 목사

##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교우동정
  - 박준영·윤병욱권님께서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 클리브랜드 한인 원로회에서 이번 주간에(월-금)까지 여행을 다녀옵니다.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바랍니다.
  - 담임목사님 노회참석 및 보스턴 방문 : 10월 9일(월) - 12일(목)

### <기도제목>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미 연합감리교회(UMC)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영어권 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캄보디아 조동천선교사님)

### <이 달의 속회 적용점> 마태복음 18:21-35

우리는 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처럼 값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내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합니다. 만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당사자와 직접 만나 용서와 화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합니다.

**<말씀묵상> 마태복음 10:34-39**

34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37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9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1.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그런 생각을 어떻게 바로잡아 주십니까? (34-36절) 나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2.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는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사람만이 생명을 얻게 됩니까? (37-39절) 나의 지금 모습은 예수님께 합당합니까?

❖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해의 여지가 가장 많은 성경구절 중의 하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조차도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 부담스러워하거나 결끄럽게 생각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 말씀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기독교는 마치 인륜을 저버린 종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와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는 폭탄 같은 선언은, 지금뿐 아니라 누구보다도 혈연관계에 철저했던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우리는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자아는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데, 그 첫 시작점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을 통해 자아가 형성되고, 강화된 자아는 일생 동안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성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타락한 자아에 기반한 이기심에 사로잡힌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기심이 강한 사람은 어떤 단체나 조직에 들어가든지 타인을 이용 대상으로 삼아 문제를 일으키고 관계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배우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심에 근거한 가정에 검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나만,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이라는 교묘한 이기심은 결국 가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을 진정으로 바로 세우고 참된 화평은 예수님을 믿고 알고 따를 때 시작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통해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 사택 (330)388-2814

E-mail : [hanmadang@gmail.com](mailto:hanmadang@gmail.com)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